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1
2025.08.25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ETS 첫 제출 마감 임박, 9월 30일까지 40% 배출권 제출

- UNFCCC, 파리협정 6조 탄소크레딧 표준 양식 도입

- CDM에서 PACM으로, 국제 탄소시장 전환 가속화

- 싱가포르-태국, 파리협정 제6조 탄소 크레딧 협정 체결

- 독일, CDR을 기후정책 중심으로 격상, 법·재정·제도 동시 강화

- Verra–S&P Global, 차세대 탄소 크레딧 인프라 구축 나서

- UAE,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속 CCS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ETS 첫 제출 마감 임박, 9월 30일까지 40% 배출권 제출

EU ETS가 5,000톤 이상의 선박이 EU 항구에 입항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게 함에 따라 해운사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 탄소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함.

제출 비율은 점차 강화돼 2026년 배출량의 70%, 2027년부터는 전량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

현재 약 13,000척의 선박이 EU MRV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고한 상태이며, 업계는 올해만 약 29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할 전망

UNFCCC,
파리협정 6조 탄소크레딧 표준 양식 도입

UNFCCC가 파리협정 제6.4조 탄소시장 제도의 신뢰성 및 환경적 무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제출 양식을 도입. 이는 프로젝트가 감축 효과를 산정 및 보고할 때 일관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

주요 특징:

- 구체적 지침 제공
  : 프로젝트 범위, 기준선 설정, 배출 감축 계산 방식 등
- 추가성 (Additionality)* 입증을 위한 요구사항 강화
  : 재무 분석, 규제 준수 검증, 배출 고착(lock-in)* 방지 포함
- 데이터 신뢰성 강화
  : 누출 배출 평가와 모니터링 프로토콜 의무화

최근 감독기구 (SBM)는 suppressed demand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했고, 조리기구 프로젝트에서는 비재생 바이오매스 (fNRB)* 계산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 9월 초에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서 역전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회의가 예정됨.

***추가성 입증**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생겨난 온실가스 감축 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배출 고착 (Emissions lock-in)**
: 고탄소 인프라/기술이 자리 잡아 장기적, 지속적 온실가스 감축을 막는 것

***비재생 바이오매스(fNRB, fraction of Non-Renewable Biomass)**
: 다시 자라지 않거나, 재생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재생 불가한 바이오매스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CDM에서 PACM으로,
국제 탄소시장 전환 가속화

최근 국제 탄소시장이 교토체제 (CDM)에서 파리협정 체제 (PACM*)로 빠르게 넘어가는 추세

지난 한 달 동안 전환 승인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14개국에서 25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됨. 6개국은 PACM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며 제도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

한편, 제6.2조 양자협정도 활발히 체결되며 일본, 스위스, 한국, 싱가포르 등이 주요 수요국으로 부상함. 프로젝트 유형은 태양광과 산업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진행

다만, 조리기구 보급 등 일부 프로젝트 전환은 과잉 크레딧 문제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감독기구는 비재생 바이오매스 (fNRB) 계산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이는 국제 탄소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

***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UNFCCC가 감독하는 중앙집중형 국제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
: 기존 교토의정서의 CDM(청정개발체제)을 대체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싱가포르-태국, 파리협정 제6조 탄소 크레딧 협정 체결

싱가포르와 태국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 크레딧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으로 태국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크레딧이 싱가포르 탄소세 제도, 국가 감축 의무 (NDC) 이행, 항공 배출 상쇄 (CORSIA) 등에 활용 가능해짐.

싱가포르는 크레딧 수익의 5%를 태국 내 기후 적응 사업에 투자하고, 2%는 발행 즉시 cancellation해 글로벌 순감축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동 협정은 싱가포르가 파라과이, 르완다, 칠레 등에 이어 체결한 여덟 번째 탄소 협력

태국은 연말까지 T-VER 크레딧*의 CORSIA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제정을 추진 중인 기후변화법은 2026년 시행될 전망

***T-VER (태국 자발적 배출 감축 프로그램, Thailand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 태국 온실가스관리기구(TGO)가 운영하는 자발적 배출감축 프로그램에서 발행되는 탄소크레딧
: 태국 정부는 T-VER 크레딧을 CORSIA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추진 중
: 외국 기업들도 구매 가능, 싱가포르와 같은 파트너 국가와 협약을 통해 해외 수요 확대 중

출처: https://carbonherald.com

Back to Top

독일, CDR을 기후정책 중심으로 격상, 법·재정·제도 동시 강화

독일 정부가 탄소 제거 (CDR) 정책을 본격 강화하기 위해 Carbon Dioxide Act 개정 협의를 시작

주요 내용:

- 런던 의정서 비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CO_2를 수출, 해저에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공해투기법 개정: 해양의 CO_2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허용하고, 연구 목적의 해수 실험도 허용
- 해상 저장 허용: 독일의 배타적경제수역 (EEZ)과 대륙붕에 CO_2를 저장할 수 있게하는 법적 기반 마련
- 산업별 적용 : 시멘트·석회·가스발전소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은 연방주(州)의 동의 하에 해상·내륙 저장 허용 (석탄화력 발전소는 제외)

또한 독일은 CDR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예산 또한 크게 증설함. 2026년 연방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1.1억 유로 이상 (약 0.2조 원)을 Negative Emissions에 배정. 2033년까지 총 3.2억 유로 (약 0.5조 원)이상이 투입될 계획.

독일 Negative Emissions 협회 (DVNE)는 이러한 변화가 CDR을 기후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평가

출처: https://carbonherald.com

Back to Top

Verra - S&P Global, 차세대 탄소 크레딧 인프라 구축 나서

Verra가 자발적 탄소시장 (VCS)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S&P Global과 협력해 신규 레지스트리를 도입

동 개편은 단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탄소시장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이라 평가. 크레딧 발행·이전·소각 과정을 자동화하고, 거래소·브로커·마켓플레이스와 직접 연결돼 고부하 거래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됨.

또한 향후 Article 6 (국제 탄소시장)과 CORSIA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 제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규제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시장은 개발자의 행정 부담 감소, 검증·발행 일정 단축, 구매자의 프로젝트별 데이터 및 이력 확인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

출처: https://www.prnewswire.com

Back to Top

UAE,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속 CCS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UAE 아부다비 수전력청(EWEC)이 알 누프 지역에 UAE 최대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짓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발행함.

동 발전소는 2029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며, 3.3GW의 전력 공급이 가능. 초기에는 CCS (탄소포집저장) 장치가 없었지만, 향후 개조를 통해 CO_2 배출의 90% 이상을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스마트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

사업 구조는 민간 개발자가 최대 40% 지분을 보유하고, 아부다비 정부가 나머지를 소유하는 형태이며, EWEC가 전력 단독 구매자로 참여. 발전소는 해수냉각 발전과 담수화 설비에도 활용될 예정

한편 UAE는 배출 규제 강화 및 탄소시장 제도를 추진 중. 금융 당국은 탄소거래 플랫폼 규제 정책을 검토 중이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혹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논의

출처: https://www.gasworld.com

Back to Top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중국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